2008 문화계 결산 ④ 문학

불황도 꺾지 못한 창작 열기

지난달 21일 보성군 벌교읍에 문을 연 태백산맥 문학관 모습. 〈보성군청 제공〉

2008년 지역 문단은 광주·전남 출신 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해였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 출신 작가들이 잇따라 소설을 발표했으며 중앙무대에 진출해 왕성한 활동을 보여줬다.

소설가 한승원씨는 지난 6월 정약용을 다룬 역사소설 '다산'과 시집 '달 긷는 집'을 비롯해 작가가 40년간의 글쓰기 인생을 통해 깨달은 글쓰기 비법을 담은 '한승원의 글쓰기 기법 108가지'도 내놓는 등 지치지 않는 창작열을 과시했다.

또 소설가 이승우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소설 안팎에서의 사색을 담은 산문집 '소설을 살다'와 아홉 번째 단편집 '오래된 일기'를 펴냈다.

수상소식도 잇따랐다. 배봉기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는 지난 8월 한국연극협회에서 주관한 한국연극 100주년 기념 전국 창작 희곡 공모에서 '인간의 시간'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또 문학평론가인 김형중 조선대 국문과 교수는 지난 5월 제20회 소천 이헌구 비평문학상을 받았다.

지역 작가들 잇따라 소설 작품 발표

박경리·이청준 선생 타계 안타까움

특히 광주·전남 출신의 1970년대 태생 젊은 작가들의 약진이 눈여겨볼 만했다.

광주출신 시인 김경주씨는 최근 평론가들이 뽑은 우리 현대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시인 1위에 선정됐으며, 시집 '기담'과 산문집 '펄프 키드' 등을 펴냈다. 또 영암 출신 희곡작가 최치언씨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희곡작품이 잇따라 당선되면서 대학로에서 꾸준히 관객을 만나고 있다.

유명 작가들의 작품 배경지나 고향에 이를 기리기 위한 문학관도 문을 열었다.

한국문학의 큰 산맥인 소설가 조정래씨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는 '태백산맥 문학관'이 소설의 무대인 보성군 벌교읍에 지난달 문을 열었다.

고향인 장흥에 작업실 '해산토굴'을 짓고 글쓰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한승원씨는 이달 초 문학학교 '달 긷는 집'을 열었다. '달 긷는 집'은 문학 팬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만남의 장소와 후배 작가들이 잠시 머물며 글을 쓰는 집필 공간으로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4월에는 이청준·한승원·송기숙·정병우·이승우씨 등 쟁쟁한 현대문학 작가들을 배출해 낸 '문림고을' 장흥군이 전국 최초로 문학관광기행특구로 지정됐다.

지역 내에서는 침체된 지역 문학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움직임이 비교적 활발했다. 지역에서는 이달 초 시인 고재종씨를 비롯해 40여 명의 시인들이 뭉쳐 시 대중화를 위해 시낭송 모임인 '비타포엠'을 창설했으며, 지난 7월에는 광주·전남 지역 문예지인 계간 '시와 사람'이 침체된 지역 문학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광주·전남 현대문학연구소'를 열었다.

하지만 한국 문학계는 큰 별들이 진 안타까운 한 해였다. 한국 문단의 거목이자 '시대의 지성'으로 불렸던 장흥 출신 소설가 이청준 선생이 지난 7월 영면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이 영원히 토지의 품으로 돌아갔다.

특히 이청준 선생은 폐암으로 투병하는 동안에도 지난해 말 작품집을 출간했으며 타계 후인 지난달에는 장편소설 '신화의 시대'가 나오는 등 마지막까지 예술혼을 불태워 후배 문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끝〉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뽀로로와 요술 램프' '팬양의 버블쇼'

어린이들 신나는 방학 선물

뮤지컬 '뽀로로와 요술램프'

어린이들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가 열린다.

한국을 대표하는 캐릭터 뽀로로가 등장하는 뮤지컬 '뽀로로와 요술램프'는 27~28일(오전 11시, 오후 2시·4시30분) 이틀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공연된다.

대한민국 국회대상에서 애니메이션 부문 대상을 차지한 '뽀롱뽀롱 뽀로로'를 뮤지컬로 만든 '뽀로로와 요술램프'는 이미 23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뽀로로와 별나라 요정'의 후속탄이다.

개구쟁이 아기 펭귄 뽀로로와 꼬마 백곰 포비 등 6명의 친구들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작품으로 흥겨운 춤과 노래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진다. 티켓 가격 3만 5천원~2만 5천원.

비눗방울로 환상적인 무대를 연출하는 '팬양의 화이트 버블쇼'는 27~28일(오전 11시, 오후 2시·5시)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다.

팬양의 자전적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어린 시절 비누방울에 대한 동경과 버블 아티스트 이야기를 공연으로 표현했다. 관객들이 무대에 올라와 공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다.

초대형 강풍기, 수십대의 스노우 머신과 버블 머신, 레이저 빔 등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무대를 만날 수 있으며 초대형 비눗방울 등도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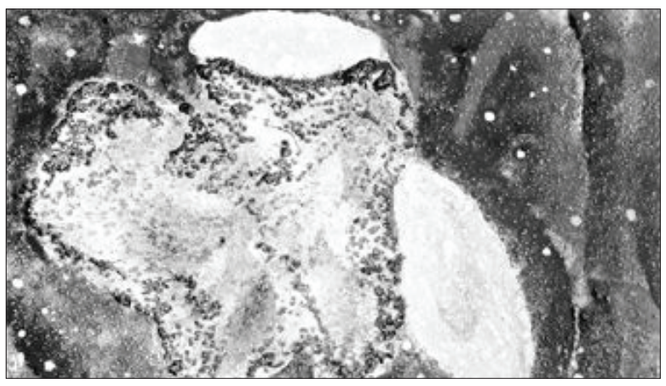
티켓 가격 5만 5천원~3만 3천원. 문의 1544-5010.

폐품을 활용한 다양한 미술작품을 만날 수 있는 '2009 뚝딱 뚝딱 정크아트 특별체험전'이 내년 1월 11일까지 광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폐품, 쓰레기 등을 재활용한 정크아트(Junk Art)는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까지 함께 전해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도 크다.

티켓 가격 1만 2천원, 1만원. 문의 062-611-301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흥두 작 '허- dream'

홍익대 미대 출신 지역작가 단체전

25~31일 무등갤러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출신 지역 작가들이 25~31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제14회 홍익-2008'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김용복, 최향, 조주호, 이명숙, 송숙남, 조용신, 김흥두, 장근주, 정숙영, 한경식씨 등 이 대학 동문 작가들이 참여한다. 또 이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이관형, 고창훈, 김현철, 나보영, 주치수, 강철구, 신도원씨 등도 다양한 디자인 작품을 선보인다.

김용복씨는 강렬한 원색을 사용해 단아한 산과, 강을 표현한 '산의 빛과 소리'를, 고창훈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차를 배달하는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풍자한 '노랑머리 휘날리며'를 각각 전시한다.

문의 062-228-662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남도미술을 찾아서' 展

광주 시립미술관

내년 5월31일까지

허백련 작 '천보구여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은 내년 5월31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근·현대 회화사를 되짚어보는 '남도미술을 찾아서'전을 갖는다. 미술관 대표 소장품을 통해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예향 남도의 미술사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이다.

전시는 ▲호남 남화(남종화) ▲남도 양화(서양화) ▲남도 조각으로 나눠 열린다. 호남 남화는 소치 허련의 예술세계를 이어받은 허백련, 조방원, 김형수, 이창주, 신영복, 허의득, 박행보씨 등 한국화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주관적 감흥과 대상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는 남종화의 특색이 물씬 풍기는 작품들이다.

또 남도 양화는 한국적인 정서를 잘 표현한 오지호, 김환기, 임직순, 양수아, 배동신, 강용운, 김영태, 최종섭씨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

한국 근대 서양화의 1세대인 오지호, 김환기 화백으로 부터 시작된 남도의 서양화단이 어떻게 변화·발전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또 양수아, 강용운, 최종섭 화백들의 작품은 남도 추상회화의 역사를 느끼게 해준다.

남도 조각은 박양선, 김행신, 고정수씨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조각품을 선보인다. 문의 062-510-014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미술계 영향력 1위 홍라희 前 리움 관장

'아트프라이스' 설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올해도 우리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뽑혔다.

미술 월간지 '아트프라이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미술관, 화랑, 아트페어 등에서 미술 작가와 관람객 등 1만5천573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갤러리 현대의 창업주인 박명자 회장은 작년과 같은 2위에 올랐고 유희영 서울시립미술관장은 2계단 높아진 3위를 차지했다. 가나아트센터 이호재 회장은 1계단 떨어진 4위를 기록했다.

이어 5위 서양화가 이두식, 6위 이현숙 한국화랑협회장, 7위 미술평론가 오광수, 8위 김창일 아라리오갤러리 대표, 9위 김순응 K옥션 대표, 10위 김창실 선화랑 대표 등 순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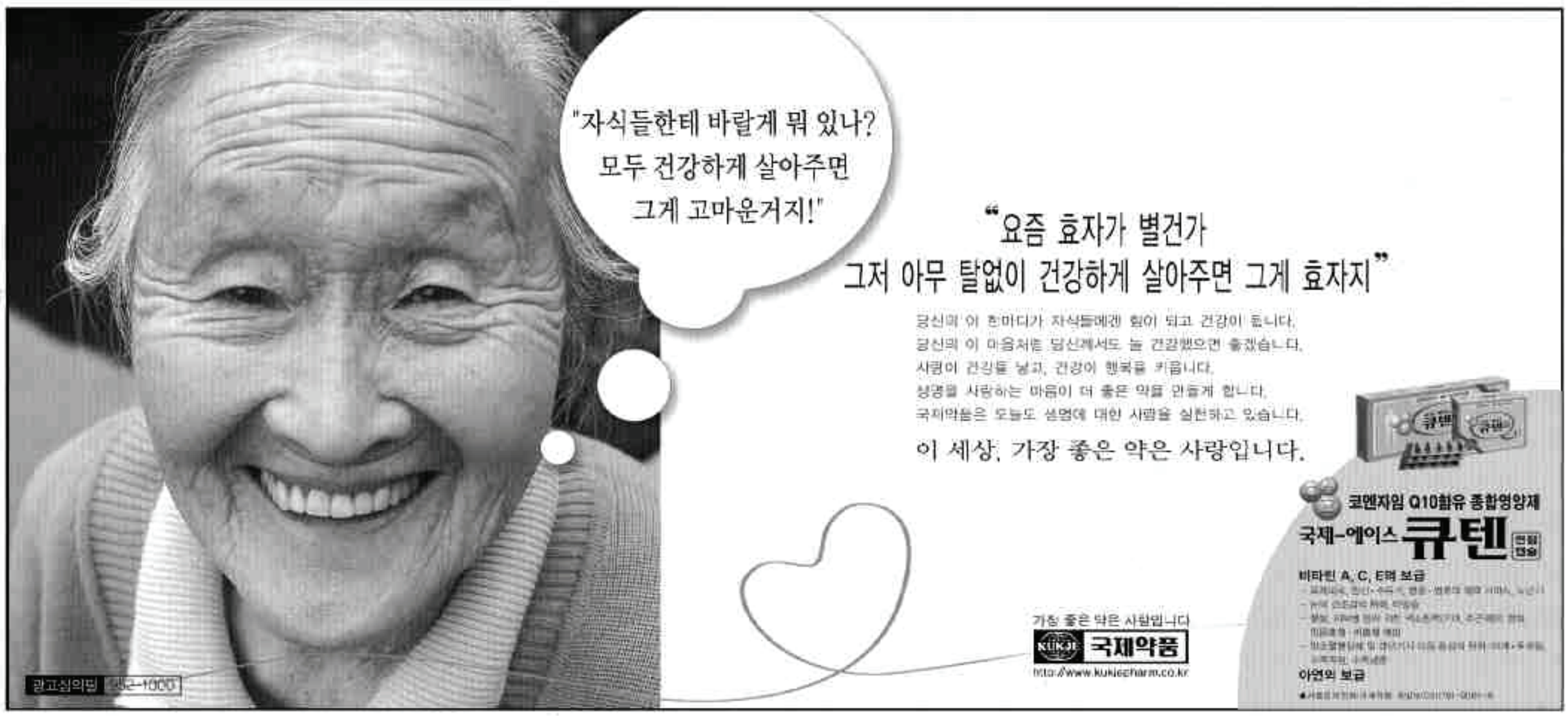
문화체험 참가자 모집

국립남도국악원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이 2008 송년 특별 문화 체험 '국악과 함께하는 무자년과 기축년'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통음악과 남도 문화체험을 함께 진행할 이번 행사는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열린다.

주 프로그램은 강강술래·풍물·민요 배우기, 국악공연 관람, 세방 낙조 해넘이·해돋이 관람 등이다.

참가비는 인원 수와 숙소(침대·온돌)에 따라 6만원부터 35만원까지 다양하며 숙박비(2박), 식사(5식), 교육비, 문화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 등이 포함된다. 문의 061-540-4033, 40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